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중생 염원 또 다른 세계 만들다”

#### 진향(眞響) 극락의 또 다른 이름

사바세계 고택(苦海)속에서 기약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중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극락이 아닐까 한다.

극락세계는 먼 곳이 아니라고 한다.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기에 마음이 평화로우면 극락이고 마음이 탐욕과 분노가 있으면 지옥이라 한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중은 아미타불께서 힘써 지으신 실제극락이 있다고 믿기에 밤마다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산다.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을 뿐 아니라 즐거움만 있는 곳이고 고통과 즐거움이 겹쳐 인간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고 수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 그러하여 극락세계에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지내면 사바세계의 고통을 겪을 필요 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한다. 극락세계는 또 정토라는 이름이 있다.

#### 정토 안양 수마제 등 다양한 이름

#### 극락 지칭하며 행복한 삶 기원해

#### 기생 진향도 아미타불에 마음 담아

에도라는 터러운 땅이라는 사바세계의 반대되는 명칭이다.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워서 오직 정결함만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터러움이 없기에 불쾌함이 없을 터이고 불쾌함이 없기에 상쾌하고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곳이다.

극락에는 또 안양(安養)이라는 이름이 있다. 편안히 지내면서 수양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더라.

수마제(須摩提)라는 명칭도 있다. 극락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정토이며 산스크리트어로 수카와띠(sukhavati)라고 하는데, 이 발음을 음사한 것이다. 그 의미는 안락(安樂), 극락(極樂), 묘락(妙樂) 등으로 번역된다고 한다.

어찌했든 극락세계에는 사고(四苦), 팔고(八苦)와 같은 현실적인 고통이 없고, 무위열반(無爲涅槃)을 즐길 수 있는 불고불락(不苦不樂)의 세계이다. 정토 삼부경(淨土三部經)중에 불설(佛說)아미타경(阿彌陀經)이 있는데 경전에는 극락세계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극락의 땅은 금은 유리 산호 마노 자거 등의 칠보(七寶)로 이루어졌고 나무도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 무한한 광명이 영원히 사방세계를



운제 진향 나무 아미타불

비추는 아름답고 깨끗하며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한 세계라고 한다. 이 러니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을 항상 이마에 모시고 세세생생 은사로 모시기를 서원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정토학의 대가분들도 잘 모르는 용어가 하나 있다. 진향(眞響)이라는 용어이다. 참된 고향 또는 진짜 고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인데, 오직 일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글이다.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할 진짜 고향이라는 의미로 쓰인 용어이다.

“이 세상 어느 곳이 진향 아니라하는 / 향화(香火)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으뜸이라, 아유왕이 손대지 못할 일이 아니라, / 월성(月城) 옛터를 찾아온 것이로다.”

위의 시는 일연스님이 쓰신 것인데, 월성은 신라의 궁성을 일컫는 말이다. 부처님의 향화를 받드는 곳은 우리나라가 으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다. 평양 기생으로 그림과 시문에 뛰어나고 비교적 근세까지 그림을 그리다 간 보살이 있다.

향상 이름을 운제(雲濟) 진향(眞響)이라 이름하는데 나 도 그림을 한 두 장 소장하고 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진향이라 향상 궁금했는데, 얼마전에 골동품상을 들렀다가 죽자나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고졸미 넘치는 글을 쓴 것을 보았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다. 불자라면 자비라는 말에 한번쯤 다시 이 작품에 눈길을 줄 것이다.

어렵고 고된 기생의 삶 속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고향 극락으로 돌아가고픈 그녀의 마음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과연 알고 자기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불심(佛心)이 넘치는 마음으로 신심(信心)어린 이름을 짓고 살아간 그 보살님의 명복을 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원효·의상 스님의 사랑의 메시지

## 뮤지컬 쌍화별곡 9월 11일 초연

원효스님의 화쟁과 일체유심조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태어난다. 천년 전 신라시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쌍화별곡’이 무대 위에 오른다. 불교방송과 조계종이 만든 이 공연은 9월 1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중국 등을 순회하며 대중들을 찾아나설 예정이다.

물론 이번 공연은 작년 주목을 받았던 뮤지컬 원효와는 차별화를 이룬다. 뮤지컬 ‘원효’가 원효 대사를 원톱으로 했다면 ‘쌍화별곡’은 원효와 의상 두 명의 주인공이 주축이 되어 함께 극을 이끌어간다. 공연은 젊고 매력적인 ‘원효’와 ‘의상’ 등 시대를 풍미했던 두 주인공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공연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내전의 시기, 시대의 지성이었던 두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그린다. 당시 신라는 종교와 생활 그리고 학문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다.

그리고 여기 고난의 시대를 견디는 민중을 끌어안으려 했던 시대의 두 지성, 원효와 의상이 있다. 작품은 이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다.

불교방송 박원식 보도위원 겸 뮤지컬 팀장은 “뮤지컬 ‘원효’ 보다는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강화하고 선묘 남자의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극적 흐름과 더불어 음악성을 강조해 대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



뮤지컬 쌍화별곡 포스터

#### 원효 의상 두 주인공 통해

#### 인류 구원의 메시지 전해

#### 뮤지컬 원효와 차별화 꾀해

#### 한중수교 중국 기념공연 진행

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고 제작진이 모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뮤지컬 ‘모차르트’ ‘헛웃’ ‘몬테크리스토’ 등을 통해 해외 크리에이티브로부터 최정상 안무가임을 인정받은 이란영이 생애 첫 연출과 안무를 함께 맡는다.

더불어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늑대



불교방송과 조계종이 만든 ‘쌍화별곡’이 9월 1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중국 등을 순회하며 대중들을 찾아나선다. 사진은 주요배역 출연진들.

의 유혹 ‘피맛골 연가’ 등의 작품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음악을 선사한다. 뮤지컬 배우가 뽑은 최고의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는 장소영 작곡가가 음악을 맡았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송스루 뮤지컬!’이라는 슬로건답게 이번 공연은 음악에 큰 비중을 뒀다. 11인조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총 24 곡의 창작곡들을 연주해 음악을 따라가는 뮤지컬을 지향한다.

서울 초연에 이어 대구와 부산 등 국내 공연을 마치고, 10월에는 중국에서 공연된다. 이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선정 한 ‘중수교 20주년 공식 기념사업’으로, 그간 수

교 기념사업 가운데서 중국에서 선보이는 유일한 대극장 창작 뮤지컬이다.

이밖에도 김다현, 정신아, 김효영, 박완, 김순택, 정영주 출연 등의 국내 실력과 배우들이 총출동해 천년전 신라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펼쳐줄 것이다. 특히, 원효 역을 맡은 김다현은 따뜻한 감성과 부드러운 열정의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지금까지 뮤지컬 ‘라카지’ ‘서편제’ ‘둔주양’ ‘라디오스타’ 드라마 SBS ‘무사 백동수’ 등에 출연했고 1999 아다 1집 ‘Wear To Healing YADA’ 음반을 출시한 바 있으며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신인상을 수상했다. (02)705-5302 정혜숙 기자

## 피에타... 예수 안은 부처를 만나다

### 조각가 박상희 개인전

로마 산피에트로대성당 입구에 위치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본 이라면 그 경건하면서도 애처로운 모습을 알 수 없는 감동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다. 불자라면 자비라는 말에 한번쯤 다시 이 작품에 눈길을 줄 것이다. 은혜가 아니라 자비라니. 그렇다. 종교란 형식과 외형적 의식을 떠나 지향하는 바는 하나일 것이다. 바로 인간의 행복과 안녕. 이 단어를 간과해서도 안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종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가 세상과 결탁하고 세속화 되면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자비 혹은 은혜라는 말은 어느새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되어버리고 민중을 괴롭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는지 모른

다. 박상희 작가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을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인류 종교에 대한 염원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 22일부터 갤러리 도스서

#### 평화 공존 메시지 전해

조각가 박상희의 개인전이 8월 22~ 9월 4일까지 갤러리 도스에서 열린다. 성모 마리아가 아닌 반가사유상의 모습을 한 우윳빛 갈 부처님이 예수 안고 있는 그의 작품 ‘피에타’는 가장 파격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종교의 벽을 허문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박 작가는 종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손을 모으면 마음이 경건해진다. 그래서 서민지 사찰 법당이나 교회에서는 내가 착

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 기도하던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쥐면 어느새 나는 초식성에서 육식성으로 바뀌는 듯한 정서적 변이를 느낀다”

이런 작가는 인류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해석하고 이 시대 어떻게 종교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며 작업에 임했다고 말한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종교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폭력과 권위를 앞세운 종교는 서로 대립과 마찰 투쟁을 해왔다. 공존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나무와 브론즈 철과 사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그는 ‘피에타’를 비롯해 ‘화중생린’ ‘아몬드꽃’ 등 10 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박상희 작가는 서울대 조소과 졸업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중앙대 대학원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종교의 평화와 공존을 담은 박상희의 ‘피에타’

국내는 물론 프랑스와 러시아 등 국내외에서 12번의 개인전과 140여 차례의 그룹전 및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동아미술상,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02)737-4678 정혜숙 기자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항스님의 범어!

## 범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은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80mm —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